

1996년 5월31일 하를렘의 주교인 헨릭 보머스 (H. Bomers) 몬시뇰은 그 당시 그의 보좌 주교였던 요셉 마리아 폰트 (J. M. Punt) 몬시뇰과 함께 신앙 교리성과의 협의를 거쳐 “모든 민족들의 어머니” 라는 호칭으로 성모님을 공적으로 공경하는 것을 허락했다.*

이 **호칭**으로 1945-1959년까지 성모님께서는 암스테르담에 사는 한 평범한 부인인 이다 페르데만 (Ida Peerdeman)에게 당시께서 “**모든 민족들의 여인**” 혹은 “**모든 민족들의 어머니**”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 받기 원하심을 밝히셨다.

예언적인 환시들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의 상황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신다.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밝히시며 이를 위하여 민족들과 국가들에게 성화와 기도문을 선물로 주신다.

이 **성화**는 하느님의 빛으로 빛나시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 지구 위에 발을 딛고, 그녀와 떨어질 수 없이 일치된 구원자 아드님의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. 성모님의 양손에서는 세 줄기 빛, 즉 당신을 변호자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구해 주실 수 있는 은총과 구원과 평화의 빛이 흘러나온다. 양떼들은 전 세계의 민족들을 상징하며, 그들은 이 세상의 중심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.

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는 타락, 위협적인 재앙과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짧고, 힘있는 **기도문**을 받아쓰게 하셨다. “**이 시대의 민족들이여, 모든 민족들의 여인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! 모든 재앙을 몰아내 달라고, 이 세상을 타락에서 구해 달라고 너희의 변호자인 여인에게 간청하여라. 타락으로 인해 재앙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.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기도를 통하여 청해야 한다! 너희는 이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힘있고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.**” (1955년 5월31일)

성모님께서는 각자가 이 기도문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바치기를 청하신다. “**나는 세계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네게 확인한다.**” (1951년 4월 29일)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 세상에 일치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리고 이 **청호** 하에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대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를 보내신다. (1953년 5월 10일) 그 때문에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께서는 이 기도문과 성화의 전파를 위해서 대대적인 **세계운동**을 강하게 요청하신다. “**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이 상분의 전파를 위해 힘쓰라!**” (1952년 6월15일)

*교회의 입장에 관한 정보는 www.de-vrouwe.info 를 보라.